



뱀새의 세상 보기

한 승 원

“**느**수 같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쪽 땅끝의 양지바
오른 언덕에 기이한 일 하나가 벌어졌다.

좌청룡 우백호의 산줄기를 배경으로 한 데다 아늑한 제비집을 연상하게 하는 그 언덕에는 두 사람의 남자가 낮 동안 내내 앉아 있다가 빨갭게 물들었던 저녁노을이 꺼지고 땅거미가 유령처럼 흘러내리면 돌아가곤 했다. 한 사람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먹물 옷을 입은 스님이었는데, 그는 산등 너머에 있는 절에 뿌리를 둔 채 살고 있었다. 다른 한 남자는 머리가 허영고 얼굴에 주름살이 깊고 걸음걸이가 불편한 노인이었는데, 그는 그 언덕 밑의 포구 마을 한 부자의 아버지였다.

그 두 사람 외에 또 다른 한 남자가 거의 날마다 거기엘 다녀가곤 했다. 그는 40대의 장년이었는데, 포구에 살고 있었다.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사람인데, 바야흐로 큰 사업 하나를 꿈꾸고 있었다.

그 양지바른 언덕 주위에는 백양나무 스무남은 그루가 서 있었는데, 그 가운데서 가장 키가 큰 나뭇가지에는 뱀새 한 마라기 늘 앉아 있곤 했다. 뒷산 산딸기 숲에 살고 있는 뱀새인데 그 언덕 위의 남자들을 살피면서 비이비이 하고 울다가 가곤 했다. 묘한 인연들이었다. 그들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거나 눈보라가 치거나 해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거기엘 왔다가 갔다.

스님은 바다를 향해 가부좌를 틀고 선에 들곤 했다. 그는 해인(海印), 모든 풍량이 잠들고 거울처럼 우주 만상을 다 비치는 바다를 보고 싶었다. 선악을 생각지 않고, 옳고 그름에 관계하지 않고, 있음과 없음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라앉힌 수미산(須彌山)이 되고 싶었다. 그렇지만 그는 그러한 경계에 들어서지를 못하고, 밀려오고 또 밀려오는 파도 같은 시끄러움에 늘 젖어 있었다. 어지럽게 일어나는 생각들과 절망과 싸우고 있었다.

포구 마을에서 큰 부자인 아들을 둔 머리가 허연 노인은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담배를 거꾸 피웠다. 스티로폴 깔개를 놓고 앉아 호주머니 속에 넣어 온 소주병과 안주를 꺼내 마시고 먹기도 했다. 자비를 베풀거나 공덕을 닦지도 않았고, 명상을 할 줄도 모르고 그저 인색하게 소처럼 늙어 온 남자였다. 봄날 가을날에는 해바라기를 하였고, 여름날에는 백양나무 그늘 아래에 드러누워 낮잠을 자기도 했다. 겨울에는 오리털 옷을 두껍게 껴입고 와서 앉아 있곤 했다.

사업을 꿈꾸는 장년은 그 언덕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. 성큼성큼 올라와서 좌선하고 있는 스님과 콜록거리며 담배를 피우거나 소주를 마시곤 하는 노인을 흘끗 보고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, 바다를 바라보고 가슴을 짝 펴면서 심호흡을 하고, 주위의 백양나무들과 비이비이 우는 뱀새와 뒷산자락을 휘휘 한바퀴 둘러보고는 이곳저곳을 두 발로 쿵쿵 디디고 배회하다가 사라졌다.

뱀새는 그 언덕에 오곤 하는 그들 세 사람이 못마땅했다. 그는 착한 아내를 데리고 와서 백양나무 가지에다가 등지를 틀고 싶었다.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그 언덕의 백양나무 숲에서 알을 낳고 깐다면 아주 훌륭한 후세 뱀새들이 태어날 것 같았다. 한데 거기에 등지를 틀고 알을 낳아 놓으면 그들 세 남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반드시 알을

꺼내 가져나, 알에서 새끼가 나오면 잡아갈 것 같았다. 그렇지는 않을 지라도 새끼를 거기에서 키우지 못할 어떤 일인가가 그 어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만 같았다. 뱀새는 자기 아내에게, 답답하고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냥 뒷산의 산딸기 숲에서 살자고 말했다.

머리가 허연 노인은 아쉬워 견딜 수 없었다. 오래 전부터 노인은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를 장차 자기의 무덤자리로 삼고 싶어했다. 포구에서 가장 큰 장급 여관 둘과 횃집을 운영하면서 관광선 두 척을 부리는 아들에게 오래 전부터 이 언덕을 사 달라고 졸랐었다. 아들은 돈을 더 번 다음에 사겠다고, 한 해만 더 있다가 사겠다고 미루더니, 끝내 사지를 못했다. 날마다 한 차례씩 언덕을 둘러보고 오곤 하는 장년에게 놓치고 말았다.

기회를 놓친 노인의 아들은 그 장년에게 자기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말하면서, 그 언덕을 자기에게 되팔든지, 그렇지 않으면 무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한 1백 평쯤만 팔라고 통사정을 했다. 장년은 절대로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다. 노인의 아들은 장년에게 시세보다 3배나 4배의 값을 쳐주겠다고 사정을 했다. 장년은 그래도 안 된다고 했다. 노인의 아들은 마침내 「그래, 그 땅 천년만년 부둥켜안고 잘살아라」하고 말하며 장년의 먹살을 잡고 따귀를 때렸다. 장년은 노인의 아들을 이마로 들이받았다. 그들은 원수가 되었다.

노인의 아들은 그 언덕말고도 좋은 명당자리가 얼마든지 있다고 아버지를 달랬다. 노인을 이곳저곳으로 모시고 다니며 무덤자리 될 만한 곳을 보여 주었다. 그렇지만 노인은 아들이 보여 주는 그 어느 곳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. 그는 자기가 쓰러져 죽을 때까지 그 언덕에 와 머물다가 가리라고 생각했다. 노인에게는 그 양지바른 언덕에 영원히 눕고 싶어하는 사연이 있었다. 그는 그 자리에서 먼저 죽어 간 할멈과 처음

으로 만났었고, 그곳에서 한여름의 별 밝은 밤에 처음으로 몸을 섞었던 것이다. 그곳을 사들이면 할멈의 무덤도 그 자리로 옮길 참이었는데…….

장년은 휘파람을 휘휘 불면서 그 노인 부자의 속셈을 비웃었다. 그는 노인 부자에게 보아란듯이 그 양지바른 언덕에다가 통나무집 30여 채를 짓고, 주변을 관광 유락지로 만들 참이었다.

어느 이른 봄날 드디어 불도저가 양지바른 언덕으로 기어 올라왔고, 그 언덕을 까몽궤다. 스님은 자기가 가부좌를 틀곤 했던 자리가 흔적도



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순간 미친듯이 웃어대기 시작했고, 너울너울 춤을 추는 듯한 걸음걸이로 자기의 절을 향해 갔다.

자기의 무덤 자리가 없어지는 것

을 본 노인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맥없이 걸어 내려갔다. 자기 집으로 돌아가 그는 방문을 잠근 채 식음을 전폐했고 그로부터 열흘째 되는 날 숨을 거두었다.

뱀새는 백양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서 뒷산의 산딸기 숲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다.

「그러면 그렇지, 사람이란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괴물이야.」

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그 양지바른 언덕에는 통나무로 지은 집들이 들어섰고 주위는 풍광 좋은 유락지로 변했다. 한데 그 통나무집들

과 유락지는 그 공사를 시작한 장년의 것이 아니었다. 애초에 그 방대한 땅의 개발은 그에게 힘겨운 사업이었다.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대어 추진하다가 부도가 났고, 서울의 한 부자가 그것을 인수한 것이었다.

그 장년은 옥살이를 하다가 나와서 낚시 관광선 한척을 부리고 있었다. 그는 점차 술주정뱅이가 되어갔다.

양지바른 언덕 위의 통나무집과 유락지에는 밤과 낮이 없었다. 낮보다는 밤이 더 요란스러웠다. 오색등불이 번쩍거리고 광란의 음악이 요동쳤고, 유락객들은 취하여 노래하고 춤들을 추었다. 청정해역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 유락지에는 사철 내내 손님들이 몰려 들었다. 해수와 광석을 이용한 짬질탕이 각처의 관광객들을 끌어들이었다. 가뜩이나 그 언덕은 기가 센 곳이라는 소문이 났다.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아기가 들면 그 아기가 장차 큰 인물이 된다고들 했다. 신혼부부들이 첫날밤을 지내려고 몰려들었다.

그 언덕을 잃은 장년은 그 유락지를 보기만 하면 속에서 열화가 끓곤 했다. 어느 날 술에 취한 채 낚시 관광선을 몰고 나간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.

「그래, 잘 죽었다.」

얼굴이 창백한 노인의 아들은 유락지의 한 전망 좋은 술집에 앉아 바다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. 그가 앉은 자리는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가 묻히기를 희망했던 바로 그 자리였다.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그 노인의 아들은 심한 당뇨병에 시달리고 있었다. 머지않아 신장기능의 장애로 말미암아 죽어 갈 터였다.ㄸ